



순창군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신규공모사업 8개 지구, 전체사업비 127억여원 규모가 국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순창군, 농어촌개발사업 선정

8개 지구·사업비 127억여원 규모... 공동문화·복지·소득사업 등

순창군이 내년도 농산어촌개발분야 국가예산 확보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 군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신규공모사업에 8개 지구, 전체사업비 127억여원 규모가 국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예산이 확정된 농산어촌개발분야 8개 사업은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57억원), △적성면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39억원), △시·군 창의아이디어 '뉴 클린 순창 만들기'(10억원) △인계면 가목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5억원), △쌍치면 석현마을 체험·소득사업(5억원), △북흥면 동산마을 경관·생태조성사업(5억원), △군 지역역량강화사업(2억원), △생산농가 웹스톱 통합 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4억원) 등으로 사업비는 총 127억원 규모이다.

군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선정 규모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성과의 비결은 사업마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만의 고유한 경관·생태, 역사·문화, 농촌체험·소득자원을 특화한 상황식 개발프로그램으로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다.

또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수차례 오가며 사업의 당위성과 성공가능성을 설득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군은 팔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팔덕면 용산리 총 3개 행정리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57억여원을 투자해 복지관, 보행자길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은 물론 경관개성사업, 마을주인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팔덕면을 확 바꾸는 사업이다.

또 적성슬로공동체 권역 종합정비사

업은 39억을 투자해 슬로라이프센터, 주민공동생활공간은 물론 농산물 가공센터, 슬로우 인생뉴시터 등을 개발해 관광사업과도 연계 시킨다.

NEW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도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억을 투자해 농약빈영전용수거함, 우수마을 자원순환사업 지원 등을 통해 농촌환경의 근원적 변화를 추진하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상황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어려운 우리지역 농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순창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며, "마을만들기 모범 농촌 고장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국가 예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연한 가을과 함께 구남원역 부지와 요천변 일원에 가을꽃들이 형형색색 활짝 피어나며 가을 여행객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구남원역 부지, 형형색색 가을꽃 '활짝'

백일홍·코스모스·산파첸스·칸나·메리골드 등

완연한 가을과 함께 구남원역 부지와 요천변 일원에 가을꽃들이 형형색색 활짝 피어나며 가을 여행객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유래 없는 뜨거웠던 여름 태양을 견뎌내며 피어난 꽃들 이어서인지 강인한 생명력과 어여쁜 자태에 시민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아낌없는 박수와 사랑을 받고 있다.

구남원역에는 100일동안 붉게 피어 있는 꽃이라는 이름의 백일홍을 금년 새롭게 대규모 군락으로 조성하여, 활

짝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매년 사진 작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스모스 꽃단지는 9월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도심속 향기원과 요천변 공간지, 춘향교 등 교량 4개소 일원에 코스모스, 산파첸스, 칸나, 천일홍, 메리골드, 웨이브 페츨리아 등이 활짝 피어나 추석 연휴와 홍보제 기간 남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눈이 즐겁고 사진찍기 좋은 가을 여행지로 손색이 없을 듯 하다.

특히 요천변 꽃단지를 거닐다 보면 어린이들에게는 책오리만 보던 식물을 직접 볼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목화 꽃송이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목화밭이 조성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는 좋은 추억 쌓기 장소가 될 것이다.

남원시에서는 "가을꽃단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내년도 꽃단지 조성을 위한 파종 준비와 초화류 생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경찰, 농기계 반사지 부착 교통사고 예방활동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 상하치안센터는 추곡 수확기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콤팩트 경운기 등 농기계를 운행하는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에 도로를 주행 중 등화장치의 부실 등으로 차량 운전자가 농기계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취도 반사지를 확보, 농기계 부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방면 치안센터장은 "농기계 차량에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사고가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야간에 도로변 운행을 지양하고 안전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일반차량 운전자들도 야간 농촌길에서는 사고가 많이 속도를 줄이고 상황등을 켜고 안전운행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식도락마을, 볼런투어 체험

봉사활동·여행 결합... 서울 한양공고 참여

고창군(군수 박우정) 식도락마을 체험사업단과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주관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반응이 뜨겁다.

12일 고창군 식도락마을인 부안면 연기마을에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이 '볼런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식도락 마을 관광프로그램의 일환인 '볼런투어'는 봉사활동과 여행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며 서울 한양공고 학생들은 획일적인 수학 여행을 벗어나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해 이번 볼런투어에 참여했다.

고창군의 생태관광지로 유명한 인천강 인근의 식도락마을 연기마을을 방문한 학생들은 콩나물국밥과 송편, 인절미 만들기 등을 체험한 뒤 마을 곳곳과 인근 소공원 청소를 비롯해 간단한 영농폐자재 수거와 연기저수지 정화활동 등을 펼쳤다. 이어 선운산 유스호스텔

로 이동해 숙박한 뒤 선운산 관광을 즐겼다.

볼런투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시골 마을의 문화와 풍습 또 고창군의 자연생태경관이 무척 인상적이었다"며 "마을 어른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까지 얻어가는 것 같아 좋았다"고 전했다.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 이승호 단장은 "향후 관광산업의 전망은 단순한 관광여행이 아닌 관광객들이 원하는 취지에 맞는 여행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보람 있고, 풍요롭고, 배울 수 있고, 얻어가는 양질의 여행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군은 이러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 마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친절'과 '삼락농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 생명농업 체험·포트럭 파티 열려

순창군은 12일, 순창읍 신남무수리에서 광주전남체험학습회 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생명농업 체험과 함께 도시소비자가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 나눠먹는 포트럭(Potluck) 파티를 실시했다.

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가족모임,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등의 마이산업(MICE)을 생태친환경농업과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처음 열린 포트럭(Potluck) 파티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도시와 농촌이 어울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장이 되었다.

순창군 신남무수리 작목반은 우수 친환경 단지로 22ha의 면적에서 연간 92.4톤의 무농약 쌀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청정 농업환경에서만 서식하는 키포리투구새우 등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높다.

이번 파티를 기획한 권영배 회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도시민과 농민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마을의 정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며 함양배추와 토종배추 심기 등 지속적인 소비자를 만나는 기회를 늘려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 박영광 경위 표창 수상

최근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수사와에 근무하는 박영광 경위는 경찰청에서 선발하는 우수 경제팀 원에 선정되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영광 경위는 지난 7월과 8월에 극작한 사건 2건을 해결, 전북지방청에서는 건축업자 5명을 숙여 11억상당

의 건축비용을 편취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을 소개합니다'에 선정되어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한 우수 조사관으로 선정되었고,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정차인, 연예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지인들에게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피의자를 전국적으로 추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발 빠르게 검거하여 우수경제팀원으로 선발 되었다.

최규운 서장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순창경찰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자" 라고 다짐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박영광 경위

고창군, 자연미당 분묘 홍보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고창읍성 일원 자연미당 조성사업과 관련해 추석 명절을 맞아 자연미당의 분묘 연구자 파악 주력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창읍성 일원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산 68번지에 시행되는 고창자연미당 조성사업은 생활권내에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해 습지등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면서 군민에게 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도심 생태거점을 확보하는 첫 사업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분묘개장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분묘의 연구자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구역 내 개장 분묘를 대상으로 분묘개장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성묘객들에게 12월 말까지 개장할 것을 권유할 계획이었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무실 근무조 편성·운영 및 전화 착신 등을 통해 추석 명절기간 동안 분묘 개장 및 보상 안내·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 이장회의, 홍보물을 제작 등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고창 자연미당 조성사업 분묘 개장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62, 2871, 2873)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관내 31개노선 일제정비

임실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는 벌초·성묘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관내 31개노선 80.7km의 임도를 일제정비하고 개방한다"고 밝혔다.

산림이 군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임실군은 산불예방, 산림경영, 산림휴양, 산악레포츠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3km의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또한, 강우 등으로 인한 사면 토사유출, 세굴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도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업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단층시설이 미흡하여 위험하므로 임도 통행시 안전사고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하반기 안심통학택시 운영

남원시에서는 하반기에도 1,000원으로 택시를 타고 학교가는 안심통학택시를 운영한다.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노선이 불편하여 자전거등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5개교 24명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예산 3,500여만원을 확보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3월 1일부터 운영을 기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도 1,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교 27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늦은 밤 자녀들을 태우러 가야 하는 부모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호응이 크다.

그동안 늦은 밤 고된 농사철에도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부담에서 해소되어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역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하반기 안심통학택시 운영

남원시에서는 하반기에도 1,000원으로 택시를 타고 학교가는 안심통학택시를 운영한다.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노선이 불편하여 자전거등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5개교 24명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예산 3,500여만원을 확보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3월 1일부터 운영을 기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도 1,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교 27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늦은 밤 자녀들을 태우러 가야 하는 부모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호응이 크다.

그동안 늦은 밤 고된 농사철에도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부담에서 해소되어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역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